

**키워드 : 한국어, 한글, 이두, 한문, 알타이 어족(알타이 제어), 교착어, 굴절접미사(어미),
모음조화, 두음법칙, 부동사, 음운대응, 문법형태의 일치, SOV 언어, 후치사적 언어, 왼쪽
가지치기 언어, 경어법, 한국어 음운의 특징**

〈한국어 개관〉

1. 한국어의 분포

한국어는 한반도 전역에서, 한국인 모두가 빠짐없이 모국어로 쓰는 언어다. 한국 국민은 그 민족도 단일 민족이고, 그 언어도 단일어임을 강조하기를 즐긴다. 한국은 확실히 단일 언어 사회(monolingual society)다. 태어나면서 누구나 한국어를 모국어, 즉 제1언어로 배우며 일생 동안 한국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산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한국어로 수업을 받으며 각종 방송도 한국어로 행해진다.

한국어는 덜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하면 그 사용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현재 (2004년 말 기준) 남한의 인구가 4,810만 명, 북한의 인구가 2,270만 명, 도합 7,080만 명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숫자는 사용 인구가 많기로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계에서 13위에서 15위쯤에 해당한다.¹⁾ 적어도 15위 안에 드니까 한국은 언어의 사용 인구로 보면 국토의 크기와는 달리 강대국(强大國)에 속하는 셈이다.

한국어는 한반도 이외에 해외의 교포들에게서도 꽤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 209만 명, 일본에 90만 명, 중국에 244만 명이 그 주종을 이루는데, 특히 미국의 뉴욕과 LA에는 Korea Town이 따로 형성되어 한국어 간판까지 내건 상점들이 즐비하고 독자적인 한국어 신문이 발행될 정도로 한국어 보존이 잘 되고 있는 편이며, 중국은 연변(延邊)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한국어가 잘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련 지역에 있는 교포도 50만 명에 달하고 이들에게서도 아직 한국어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중남미(中南美)나 캐나다 쪽에서도 꽤 많은 교포들이 한국어를 쓰고 있다.²⁾ 그리고 근래 국력의 신장에 힘입어 외국인에게도 한국어의 보급이 점차 확산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한국의 문자

한국어는 일찍부터 문자로 기록되어 왔다. 한국 고유의 문자인 한글이 창제된 것은 1443(또는 1444)년이다. 이때부터 한국어는 완벽한 음소문자(phonemic writing)에 의해 기록되기 시작하였고, 그 자료들이 지금까지 풍부하게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일찍부터 중국으로부터 한자(漢字)를 들여와 썼고, 그 한자에 의한

1) Crystal(1987)에 보면 한국어는 사용 인구를 6,000만 명으로 쳐서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15위로 올라 있다. 공동 13위의 두 언어가 사용 인구 6,500만 명으로 되어 있으니 한국어의 순위는 이 언저리로 보면 될 것이다.

2) 중남미에 9만 명, 캐나다에 7만여 명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독일에 3만 명, 기타 지역에 13만 명 정도가 있다.

문자 생활을 상당히 활발한 수준으로 영위하였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어 쓴 민족이다. 즉 독일의 J. Gutenberg가 금속활자를 만들어 쓴 1440년경보다 훨씬 이전인 1234년에 금속활자로 책을 간행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1377년에 금속활자로 간행된 문헌이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때의 활자는 한자였고 글은 한문(漢文)이었으나, 다시 말하면 당시의 한국의 문자 언어는 음성 한국어와는 동떨어진 한문이었으나 이처럼 일찍부터 활기를 띠었던 문자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활발한 문자 생활은 그것이 비록 한자에 의한 것이었어도 한국어의 기록에도 기여하였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한국인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한자의 훈과 훈(訓; 또는 석(釋))을 빌어 한국의 인명이나 지명 등을 표기하는 수단을 개발하였으며 신라 시대에는 향가(鄕歌)라는 형식의 한국어 시(詩)를 전부 이 방식의 표기법으로 저작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한자의 음(音)과 훈을 빌어 한국어를 표기하는 표기법이 이른바 이두(吏讀)로서, 한국어는 이두에 의해 기록된 것을 계산에 넣으면 일찍이 5세기경부터 문자에 의해 기록된 언어다.

그러나 이두에 의해 기록된 자료는 많지 않다. 이 표기법은 후대로 오면서 오히려 위축되어 문자언어는 거의 전적으로 한문으로 충당되었고 가장 완벽한 한국어 모습을 보여주는 향가도 겨우 25 수(首)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면적인 모습으로 한국어가 기록으로 전해지게 된 것은 한글이 창제된 15세기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근래에는 FM, CD, VTR, FAX,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MBC (Munwha Broadcasting Cooperation)와 같은 로마자가 점차 세력을 넓혀 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어에서만 현상은 아닐 것이다. 한국은 역시 한글이라는 한국 고유의 문자에 의해 문자 생활을 영위하는 나라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어의 계통

한국어는 아직 그 계통이 확고히 밝혀진 언어는 아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학자들은 G. J. Ramstedt(1928, 1952, 1957)나 N. Poppe(1960)와 같은 알타이어학자들의 견해에 힘입어 한국어가 알타이어족(Altai 語族)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믿고 있다.³⁾ 즉 터키어, 몽고어, 퉁구스어 등 전통적인 알타이어족의 세 어군(語群) 사이에서와 같은 밀접한 관계는 아니지만 이들과 같은 어족을 형성하며, 그들 중에서는 퉁구스어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한국어는 나머지 알타이 제어(諸語)와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공통 특징을 가지고 있음이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 우선, 언어를 고립어(isolating language), 굴절어(inflexional language) 및 교착어로 나눌 때 한국어는 알타이 어족과 함께 전형적인 교착어에 속한다. 어간에 굴절접미사들이 규칙적으로 결합되는 언어인 것이다. 또 모음조화(母音調和)가 있다. 한 단어 안에서 양모음은 양모음끼리 음모음은 음모음끼리 결합한다. 이른

3) Ramstedt를 비롯한 서구 학자들의 업적이 서양에서도 인정되는 한 예를 다음 일절에서 읽을 수 있다. "In Weighting the scholarly support for these various configurations, I conclude that Altaic Proper(= Turkic, Mongolian, Tungus) is widely accepted as a valid generic group. The affiliation of Korean with this complex has also gained considerable support. (Ruhlen 1987 : 130). 종래에는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는 설이 널리 퍼져 있었고 오늘날도 이 설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현 학계에서 우랄 알타이 어족은 그 성립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종래의 우랄 알타이 어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늘날에는 알타이 어족과 피노우그리어족(Finno-Ugric Family)이 존재할 뿐이다.

바 두음법칙(頭音法則)도 있다. 단어 첫머리에 ‘ㄹ’음이 올 수 없으며 자음이 두 개나 그 이상 겹쳐 올 수도 없다. 관계대명사가 없고 접속사가 없다. 동사가 어미를 취하여 인구어(印歐語)의 관계대명사나 접속사가 처리할 일을 담당한다. 특히 부동사(副動詞)를 이루어 접속사가 할 일을 한다. 이상과 같은 한국어의 특징이 그대로 알타이제어에 다 적용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어휘 및 문법 형태의 비교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다(이기문 1972). 한 예로 다음 예문 (1)에서와 같은 비교에서 고대 한국어의 ‘a’와 알타이조어(祖語)의 ‘*a’ 사이의 음운 대응을 증명한 것이 그 예다.

- (1) 중세 한국어 ‘아래’(<*al), 에벤키어 ‘alas’(脚), 몽고어 ‘ala’(사타구니),
고대토이기어 ‘al’(下向), 중세토이기어 ‘altin’(아래)

또 자음의 경우에도 다음 예문 (2)에서와 같은 비교에서 한국어 ‘ㅃ’과 알타이조어 ‘*p, *b’ 사이의 음운 대응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 (2) 중세 한국어 ‘붓-’(注), 만주어 ‘fusu-’(물을 뿌리다),
몽고어 ‘üsür-’(뿌리다, 솟다), 몽구올어 ‘fuzuru-’(붓다),
토이기어 ‘üskür-’(입으로 뿜다)

문법 형태 중에서도 훌륭히 일치하는 것들이 밝혀진 바 있다. 한국어의 방향 표시의 처격조사 ‘로’가 고대터키어 ‘rü’나 몽고제어(諸語)의 ‘ru’와 비교되면서 알타이조어 ‘*ru/rü’를 재구(再構)케 한다는 것이 그 하나다. 동명사 어미 ‘-*r, -*m, -*n’의 일치는 특히 한국어와 알타이제어 간의 친족관계 수립에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하여 한국 학자들은 밖에서의 평가와는 달리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소속될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높게 보고 있다. 고대 자료의 부족으로 어떤 한계는 절감하면서도 한국어가 알타이어족 이외의 다른 어족에 소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알타이 조어(祖語)로부터 분리되어 나오지 않았다면 적어도 어떤 같은 뿌리에서 알타이 조어와 한국어가 분리되어 나왔으리라는 것이 이기문(1972)의 결론이며 한국 학계의 대표적 견해라 할 수 있다.

일본어는 한국어와 꽤 가까운 관계에 있는 편이다. 일본어는 무엇보다 전술한 공동특징 및 유형상의 특징에서 대부분 한국어와 일치한다. 그 완벽한 일치에 비해 구체적인 어휘나 문법 형태에서의 일치가 너무 빈약한 것이 장애가 되어 왔으나 두 언어가 한 계통에 속할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물론 일본어는 한국어보다도 그 계통을 수립하기가 더 어려운 언어로 일컬어지고 있다.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도 그만큼 더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어의 계통을 오스트로네시아 어족(Austronesian) 쪽으로 관련시키려는 이른바 남방계설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가 한국어와 가까운 관계에 있고 동시에 알타이어족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일본 학자들한테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한국어가 어느 한 어족에 속한다면 어느 다른 어족보다 알타이어족에 소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도 알타이어족 자체의 성립에 회의적인 견해가 있는 것만은 어쩔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

의 계통이 좀더 확고한 기반을 얻으려면 알타이어족의 성립이 보다 확고하게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4. 한국어의 유형적 특징

한국어는 영어를 비롯한 인구어(印歐語)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가 대조적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영어 등이 SVO 언어임에 반해 한국어는 SOV 언어임에서 생기는 차이이다. 한국어는 늘 동사가 문장 끝에 놓이는, 말하자면 동사 문말 언어(verb-final language)이다.

한국어는 전술하였듯이 교착어이기도 하다. 명사가 예문 (1)에서처럼 여러 종류의 조사(助詞)를 취하며, 무엇보다 동사 (및 형용사) 어간에 결합되는 어미(語尾; ending)가 놀라 우리만치 많고 그 어미가 주요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예문 (2)에서처럼 시제(時制)도 그 어미에 의해 정해지며, 예문 (3)에서처럼 서술문이 될지 의문문 또는 명령문이 될지도 문장 끝의 어미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뒤에서 말할 경어법도 거의 이 어미들에 의해 구분된다. 우스갯소리로 영어는 중요한 것이 문장 앞쪽에서 결정되는 데 반해 한국어는 그 것이 뒤쪽에서 정해진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꽤 일리 있는 말이다.

- (1) a. 강아지-가 귀엽다.
b. 강아지-를 잘 돌보아라.
c. 강아지-에게 물을 주어라.
- (2) a. 꽃이 언제 피-니?
b. 꽃이 언제 피-었-니?
- (3) a. 민호가 책을 읽-는다.
b. 민호가 책을 읽-니?
c. 민호가 책을 읽-어라.

한국어는 형용사도 동사와 거의 일치하는 활용을 한다. 이 점은 be 동사의 도움 없이는 서술어가 되지 못하고 시제도 나타낼 수 없는 영어의 형용사와 사뭇 다른 점이다.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독립된 품사이기보다는 동사의 한 하위류라고 하는 것이 나올 만큼 여러 면에서 동사와 일치하는 점이 많다.

- (4) a. 마당이 넓-다.
b. 마당이 넓-었-다.
c. 마당이 넓-었-니?
- (5) a. 동생은 키가 크-다.
b. 아버지는 키가 크-시-다.

한국어에서는 수식하는 말이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놓인다. 관형어가 명사 앞에 놓이고 부사는 동사 앞에 놓인다. 명사(head noun)를 꾸미는 관계절도 그 명사 앞에 놓인다. 형용사가 명사 뒤에도 놓일 수 있는 프랑스어나, 또 관계절이 반드시 명사 뒤에 놓이고 부사가 동사 뒤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 영어와는 대조적인 셈이다. 그리고 영어의 전치사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는 반드시 명사 뒤에 놓이므로 전치사식으로 이름을 붙이자면 후치사

(postposition)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영어는 전치사적 언어(prepositional language)요, 또 관계절이 오른쪽으로 가지를 쳐가는 오른쪽 가지치기 언어(right branching language)임에 반해 한국어는 후치사적 언어(postpositional language)요, 또 관계절이 왼쪽으로 가지를 쳐가는 왼쪽 가지치기 언어(left branching language)라고 할 수 있다.

경어법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도 한국어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영어에서는 ‘you’ 하나로 친구, 아버지, 선생님을 다 가리킬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아버지나 선생님을 아예 대명사로 지칭하는 법이 금지되어 있다시피 하다. 또 주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나에 따라 예문 (9)에서처럼 구분하여 말해야 한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버스가 온다’는 표현을 청자가 누구이든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내지만 한국어에서는 예문 (10)에서처럼 청자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나에 따라 다음처럼 문말어미를 적절히 바꾸어 적어도 4가지, 많으면 6가지 정도로 달리 표현한다.

- (9) a. 아이가 뛰-ㄴ다.
- b. 아버지가 뛰-시-ㄴ다.
- (10) a. 버스가 오-ㄴ다. (대학교수가 아들딸이나 어린 사람들, 또는 친한 옛친구에게)
- b. 버스가 오-네. (대학교수가 대학원생 제자에게)
- c. 버스가 오-아요(와요). (대학교수가 자기 부인에게, 또는 낯선 청년에게)
- d. 버스가 오-ㅂ니다. (대학교수가 아버지나 옛 은사, 또는 낯선 노인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서양인들은 흔히 한국어가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경어법 때문이라고 한다. 적절치 못한 경어법을 선택해 쓰면 무례한 사람으로 오해받게 되고, 또 지나치게 높은 등급의 말을 골라 써도 우스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미묘한 경어법을 바로 골라 쓰는 것은 한국인에게도 어려울 경우가 있다. 하물며 외국인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일본어도 사정이 비슷하지만 한국어가 더 심한 편이어서 아마 세계 언어 중 경어법이 가장 복잡하게 세분되어 있는 언어는 한국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그만큼 복잡한 경어법은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꼽아야 할 것이다.

한국어에는 음운에서도 영어에는 없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자음 목록에서 순치음 f-v, 치간음 ʈ-ɖ가 없는 것을 우선 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또 폐쇄음(stop) 및 마찰음(fricative) 및 파찰음(africate)에 있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한국어에는 없다. 즉 p-b, t-d, s-z, ʃ-ʒ, k-g의 대립이 한국어에는 없다. 이것은 중국어나 일본어와 비교하여서도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만하다. 그 대신 평음-경음-격음의 대립이 있다. 즉, p-p'-p^h, t-t'-t^h, ʃ-ʃ'-ʃ^h, k-k'-k^h의 대립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달(moon)-딸(daughter)-탈(mask) 따위의 구분이 서양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음절말의 자음은 모두 불파음(不破音; unreleased)으로 실현되는 것도 큰 특징이다. 영어의 hat, help의 t, p를 파열시키는 발음이 한국어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들을 억지로 파열시키려면 영어에는 없는 모음 [ɪ]를 동원하여 [hetɪ], [helpɪ]로 발음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이들을 외래어로 받아들일 때에는 ‘캠프’(camp), ‘벨트’(belt)처럼 모음을 넣어 발음하는 일이 많다.

한국어는 서양인에게는 여러모로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는 언어인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인구어에 없는 특징들로만 뭉쳐 있는 언어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러

한 언어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신비로움이 있다면 그 신비로움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언어들이든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한국어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몇 장으로 나누어 그 베일을 하나씩 벗겨 나가기로 하겠다.

1. 한국어는 어디에서 얼마나 쓰이고 있을까요?
2. 한국인들이 사용해 온 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한국어의 계통을 추정해 봅시다.
4. 한국어의 유형적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